

짜장면 배달원의 사랑과 오해,
그리고 구국 투쟁
— 영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을 중심으로

박상민*

1. 한국 대중서사와 짜장면
2. 대학생과 철가방 - 서로 다른 언어의 충돌과 소통의 역설
3. 짜장면과 언어유희 - 구어(口語)의 힘과 모순의 극복
4. 구국의 철가방 -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강철대오
5. 마치며

국문요약

이 논문은 짜장면을 모티프로 한 영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에 나타난 시대상과 주제의식을 분석한 글이다. 특히 짜장면을 소재로 1980년대를 향수하는 방식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강철대오>는 대학생과 짜장면 배달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희화적으로 대비시켜 그들의 소통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강철대오>는 짜장면을 둘러싼 다양한 언어유희를 통해 논리적 사유를 뛰어넘는 '말의 힘'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두 계층의 소통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구국의 철가방'이라는 영화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짜장면 배달부 강대오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대중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서사이다.

*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초빙교수

〈강철대오〉는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작품 속으로 소환하여 잊혀져 가고 있던 80년대의 사회상을 복원하는 데에 일정하게 성공하였다. 운동권 여학생을 짝사랑한 짜장면 배달원의 이야기를 통해 1980년대의 공안정국과 당시 학생들의 반미감정을 그린 것은, 익숙하지만 빠르게 잊혀가고 있는, 하지만 기억해야 할 눈앞의 과거이다.

(주제어: 짜장면, 강철대오, 구국의 철기방, 여대생, 소통, 1980년대, 미문화원 점거 농성,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1. 한국 대중서사와 짜장면

하루에 600만 그릇 이상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진 짜장면¹⁾은 남녀노소 누구나 수 없이 먹어본 음식이다. 세상에 선보인지 불과 한 세기도 되지 않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한국의 대표 음식 반열에 오른 만큼 짜장면을 둘러싼 흥미로운 서사들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짜장면에 대한 공식적 서사물은 흔하지 않다. 짜장면에 얽힌 대부분의 이야기는 개인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개인에게는 흥미롭지만,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 서사는 아닌 셈이다.

1)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래어표기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장면'을 바른 표기로 고시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짜장면'이라는 표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언어학자인 연규동은 짜장면의 어원을 중국어 'Zhajiangmian(炸醬麵)'으로 보고, '麵'이 한국식 한자음 '면'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표기한 것 역시 외래어표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외래어표기법 규정에 의하면 짜장면은 '자장몐' 또는 '자장몐'이 되어야 한다.(연규동, 『'짜장면'을 위한 변명-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호, 한국어학회, 2006, 200쪽.)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문예작품에서 짜장면은 여전히 '짜장면'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31일자 고시에서 국립국어원은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 글에서도 '짜장면'으로 표기한다.

물론 세대별로 조금씩의 공통점은 있다. 어린 시절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먹은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도 있고, 고된 자취 생활 내내 지겹도록 시켜 먹은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조차 공식적으로 출판되거나 제작된 서사물은 거의 없다.²⁾

많지는 않지만 짜장면을 소재로 한 출판물들이 있다. 안도현과 곽재구가 각각 동명의 동화 『짜장면』을 출간하였고, 유중하 시인 역시 『짜장면』이라는 제목으로 기행 수필집을 출간하였다. 정호승의 〈짜장면을 먹으며〉는 짧은 시이지만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애송시이며, 작품 자체는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 작가 허영만의 『짜장면』이라는 만화책도 있다.³⁾ 이 밖에도 '짜장면'을 제목으로 하거나 또는 핵심 모티프로 한 수필집과 연극 작품들이 좀 더 있다.

'짜장면과 대중서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G.O.D.의 대중가요 〈어머님께〉이다. 노래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라는 가사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아들에게만 짜장면을 사주며 자신은 짜장면이 싫다고 말하는 어머니 이야기인데, G.O.D.의 멤버들과 그들의 노래를 향유하는 팬들이 실제로 이런 기억을 공유할 만한 세대는 아니었지만 '가난과 모성'이라는 대중적 모티프 때문에 쉽게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하지

2) 김만태는 『'짜장면'의 토착화 요인과 문화적 의미』(『한국민속학』 50호, 한국민속학회, 2009. 11.)에서 짜장면에 얽힌 수십 명의 서로 다른 개인사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3) 만화 『짜장면』의 작가를 흔히 허영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허영만은 2권까지의 그림만 그렸다. 총 11권인 만화 『짜장면』은 2권까지의 그림을 허영만이 그렸고, 나머지는 김재연이 그렸으며, 전체 글은 모두 박하의 작품이다.

안도현의 동화를 원작으로 만화가)도 있다. 김기국은 『'만화 짜장면'과 상상력의 스토리텔링』(『기호학 연구』 29집, 한국기호학회, 2011.)에서 안도현의 동화와 만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만 여기에서 ‘짜장면’은 서사의 핵심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라는 가사는 기억해도 이 노래의 제목이 〈어머님께〉인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듯이, 이 노래의 핵심은 가난과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다. 물론 여기에서 짜장면을 만두나 갈비탕, 떡볶이 등으로 대체한다면 감흥이 반감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G.O.D.의 〈어머님께〉는 한국을 대표하는 짜장면 서사 중 하나일 것이다.

사실 짜장면을 모티프로 한 노래는 〈어머님께〉 이외에도 여러 편이 더 있다. 철가방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짬뽕과 짜장면〉도 있고 블랙콜의 〈짜장면〉, 무직기타의 〈짜장면 총각〉, 정희라의 〈짜장면 시켜먹고〉, 바이폴라의 〈짜장면〉, 작가 미상의 동요 〈짜장면〉 등 짜장면을 모티프로 한 여러 대중가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래는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 무얼 먹을까 고민된다, 짜장면 집 아가씨가 예쁘다 등의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할 뿐 수준 높은 형상화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인지 대중적으로 성공한 서사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짜장면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있다. 1999년에는 〈신장개업〉과 〈북경반점〉이라는 짜장면 소재의 영화 두 편이 각각 개봉되었고, 최근에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세 영화 모두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다. 김성훈, 명세빈 등의 청춘 스타들이 주연을 맡았던 김의석 감독의 〈북경반점〉이 그나마 대중적으로 가장 흥행하였다. 하지만 〈북경반점〉은 전통 춘장을 이용하여 짜장면의 깊은 맛을 내려고 하는 요리사의 장인정신을 주제로 한 영화이다. 짜장면이 중요한 소재이기는 하지만, 장인 정신을 갖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부각될 뿐 짜장면을 둘러싼 문화적 맥락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특정한 시대적 배경이 부각되지 않는다. 가난했던

과거와 풍요로운 현재가 대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한 시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요리의 소재를 짜장면에서 설렁탕이나 초밥 등으로 대체하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음식의 미학'이라는 영화의 주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듯하다.

〈북경반점〉에 비해 〈신장개업〉은 '짜장면' 자체에 좀 더 몰입한 서사이다. 〈신장개업〉은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유일한 중국집 '중화루' 앞에 갑자기 '아방궁'이라는 중국집이 등장하면서 생긴 해프닝을 다룬 영화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아방궁 짜장면 맛의 비밀이 '인육'에 있다는 괴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되는 코믹 스릴러이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도 짜장면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은 1985년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 배경으로 삼았고, 운동권 학생들과 중국집 배달원 간의 코믹한 에피소드를 통해 1980년대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그리는 데에 일정하게 성공하였다. 특히 대학생과 짜장면 배달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희화적으로 대비시켜 그들의 소통 불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짜장면을 둘러싼 다양한 언어유희를 통해 논리적 사유를 뛰어넘는 '말'의 힘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두 계층의 소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은 대중적 문화 기호로서 짜장면을 주제화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2. 대학생과 철가방 - 서로 다른 언어의 충돌과 소통의 역설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이하 〈강철대오〉로 표기)은 여대생 서예린을 짝사랑하는 중국집 배달부 강대오의 구애기(求愛記)이다. 왜소한

체구와 못생긴 외모의 중국집 배달부 강대오는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⁴⁾라는 메모와 함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어놓는 기숙사 301호의 여대생 서예린에게 첫눈에 반한다. 상사병에 걸린 강대오에게 식당 선배 황비홍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대학생은 자신들과 다른 신분이며, 그들과의 연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강대오는 자신이 송충이라면 솔잎은 서예린이라고 응수한다. 여대생과 중국집 배달부의 신분 차이가 남녀의 사랑을 가를 수 없다는 낭만적 사고를 보여준 것이다.

강대오의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그러나 장난스럽게 응원해주는 인물이 바로 쉘인 교수이다. ‘강의/회의/재실/출장/교내/외출’이라고 적힌 연구실의 문패에 싸인펜으로 직접 ‘짜장’이라는 글자를 덧쓴 쉘인 교수는 수시로 짜장면을 시켜먹는 짜장면 애호가이다. “The brave gets the beauty. 용감한 인간이 미인을 얻는다는 얘기가야. 누가 좋으면 가서 좋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걸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 아냐?”라는 쉘인 교수의 말에 강대오는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이어서 쉘인은 “씨발! 단무지 좀 넉넉하게 가져오면 안 되냐?”라고 다그쳐, 강대오에게 했던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드러낸다.

쉘인 그리고 하나 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 것처럼 한번 안됐다고 좌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여자는 넘어 온다는 거 아냐?
뽀나스 하나 더 주까 마까?

대오, 가방에서 야끼만두 한 접시를 꺼내 쉘인 앞에 놓는다.
쉘인, 흐뭇하게 웃고는,

4) 작품의 배경인 1980년대에는 ‘먹었습니다’라는 표기가 맞춤법에 맞다.

쉐인 붕어빵은 붕어가 없고, 영란씨 없는 내 인생에 사랑은 없다.
몇 년 전 어느 여대 앞 붕어빵 장사가 여대생에게 프로포즈하면서
한 말야.

쉐인, 의기양양 야끼만두를 베어 문다.

놀리는 듯 아닌 듯한 쉐인 교수의 훈수는 대학을 다닌 적 없던 강대오에게 유일한 대학 교육이다. 강대오는 쉐인 교수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모두 기록하며, 그 의미를 묵상한다. 밤 늦게 중화루⁵⁾ 홀에 혼자 앉아 간짜장 소스를 면에 붓던 강대오는 마침내 자신만의 독특한 고백 문구를 창안해 낸다. 쉐인 교수가 이야기해 준 붕어빵 장사의 수사적 전략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다.

대오 면을 덮는 검은 짜장처럼 저의 마음도 누군가의 마음을 덮어 갑니다.

예린, 대오를 올려다본다.
대오, 헬멧을 쓴 채로 말하고 있다.

대오 비비면 짜장과 면은 하나의 사랑면.
완두콩과 오이채는 사랑의 아름다운 양념.

물론 강대오의 프로포즈는 완벽하게 실패한다. 검은 색의 카라멜 춘장 볶음이 하얀 색의 익힌 면발과 함께 섞여 맛있는 짜장면을 완성한다는 ‘사랑면’의 수사학은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려웠다. 붕어빵 장수의 고백이 성공하여 대중적으로 회자된 것은 그 이전에 붕어빵 장수와 여대생 간에 이미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얼굴도 모르는

5) 강대오가 근무하는 중국식당

중국집 배달원이 짜장면을 배달하러 와서, 헬멧을 쓴 채 옹근 사랑 고백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대오는 그러한 정황을 이해할 만큼 지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에게 대학교수의 충고는 그 자체로 자신의 연애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희망의 메시지였고, 강대오는 최선을 다해 그의 충고를 따랐던 것이다.

첫 번째 고백에 실패하고 낙담한 강대오는 예린이 준 천원짜리 거스름돈 지폐를 간직하고 있다가 지폐 귀퉁이에 적힌 메모를 발견한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하나씩 갖자!
생일파티, 17일 낮 12시, 중앙동 새마을금고 앞

그 동안 짜장면 접시를 반납할 때마다 예린이 넣어준 예린의 메모지에 적힌 글자와 같은 필체임을 확인한 강대오는 메모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시 쉼인 교수를 찾아간다. 쉼인은 메모를 읽자마자 ‘체 게바라’라고 말한다. 체 게바라를 알지 못하는 강대오는 ‘책에 보라’라고 잘못 듣고 책 볼 시간이 어디 있냐며 반문한다. 쉼인 교수는 한심한 표정을 지으며 서가에서 〈체 게바라 평전〉⁶⁾을 꺼내어 보여준다.

쉼인 중국옷 입고 이소룡 폼만 재고 다니면 뭐하냐?
공부 좀 해라!
카스트로랑 쿠바 혁명을 했던 체 게바라.
그 사람이 한 말야 임마.
리얼리스트는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말이고,

6) 쉼인 교수가 꺼낸 체 게바라 평전은 2000년에 출간된 책이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인 1985년과는 많은 시차가 있다. 하지만 체 게바라의 어록이 80년대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작품 전개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한 꿈은 곧 혁명이라구.
혁명은 불가능한 걸 이루는 거지,
아이, 시바, 너 단무지 또 한 접시만 가져왔냐?
너도 좀 리얼리스트가 되라. 나한테 올 때는 두 접시 가져 와야지.

쉐인의 논리는 여전히 장난스럽지만 ‘혁명’에 대한 그의 해석은 강대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다. 불가능한 걸 이루는 것이 혁명이라면 ‘혁명’을 통해 강대오는 예린과 사랑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이 강대오의 각성이다. 이후 강대오는 예린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대학생들의 대화에도 끼고 싶어하지만, 그의 시도는 중요한 고비마다 번번이 실패한다. 영화의 대부분은 이들의 어긋난 의사소통 사례로 채워져 있다.

강대오가 예린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린이 짜장면 그릇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반납했고, 그릇에 고맙다는 내용의 쪽지까지 보냈기 때문이다. 민중의 편에 서서 사회 변혁 운동을 하던 예린은 기층민중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짜장면 그릇을 씻었고, 잘 먹었다는 쪽지도 함께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강대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린의 행동은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강대오는 예린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대로 받아들여 일방적인 짝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강대오가 미문화원 점거 농성장에 들어간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대오는 예린이 ‘생일파티’에 참석할 것을 알게 되었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혁명이라는 쉐인 교수의 말을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켰다. 하지만 예린의 ‘생일파티’는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가리키는 은어였고, 체 게바라가 말한 리얼리스트의 불가능한 꿈은 민중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했다.

밤이 되자 미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민중가요를 부른다. <타는 목마름으로>부터 시작한 민중가요 릴레이는 계속 이어지며 강대오의 차례까지 돌아온다. 걱정스럽게 그들의 노래를 분석하던 강대오는 그들이 대부분 ‘밤’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강대오가 알고 있는 김완선의 <오늘 밤>을 부른다.7) ‘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과장된 억양을 섞어가면서 김완선의 춤까지 따라한다. 황당해 하는 학생들이 강대오에게 무엇인가를 물으려 했지만, 때마침 들이닥친 미국 참사관 및 문화원장과의 면담 요청 때문에 릴레이 음악회는 중단된다. 그리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 곤혹스러워하는 와중에, 영문과 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강대오가 미국인들 앞에 나서게 되고, 쉐인 교수에게 배운 유일한 세 문장의 영어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대오 로미스나... 로미스나 빌 이너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마스 What? you guys really want trouble?
(정말 니네 한번 해보자는거냐?)
How long can you guys stay here? We can bring up U.S Marine, and
all the aircrafts here with this one phonecall. You really want it?
(니네가 얼마나 여기 있을 수 있을것 같애? 당장 미해병대와
공군기들을 불러와야 정신 차리겠어?)

학생들, 다시 대오를 본다.

7) 김완선의 <오늘 밤>은 1986년 6월에 발매되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문화원 점거 농성은 1985년 5월에 있었다. 따라서 점거 농성장에서 강대오가 <오늘 밤>을 불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대오 더 브레브 게 더 뷰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안드레이 (영어) 당신들의 용감성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소,
하지만 이걸 여자를 얻는 게임이 아니라 한미간의 외교적 문제란 말
이요.

학생들, 다시 대오를 본다.

대오 투 비 오어 낫 투비 댓 이즈 퀘스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토마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토마스 갓 댐잇!
(영어) 당신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나온다면 우리도 생각이 있소.
(대오를 가리키며) 당신,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요!
문화원장 갑시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계기로 강대오는 다시 농성학생장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미국 참사관 토마스는 한국 기자들에게 농성학생들을 과격한 테러리스트로 규정한다. 강대오와 미국인들의 코믹한 에피소드는 당시의 우리 사회가 서로 간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자 자신들의 담론만을 순환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다. 미문화원을 점거한 지식인들은 전 세계에 한국의 독재체제를 고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세계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은 갖고 있지 못했다.⁸⁾ 그들은 민중해방을 외쳤지만 대중가요와 중국집 배달원을 무시했으며, 중국집 배달원 역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대화를 하겠다며 학생대표를 만난 미국인들 역시 통역을 대동하지 않았고, 강대오의 선언적

8) 이는 1985년의 실제 미문화원점거 때의 상황과는 다르다.

격언 세 문장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진의를 자기 임의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한 불신과 높은 장벽을 확인할 뿐이었다.

강대오와 학생들의 소통을 막았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강대오의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대학생과의 연애를 반대했던 식당 선배 황비홍은 ‘철기방이라고 말하는 순간 넌 그 여대생과 끝이다.’라며, 강대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충고한다. 황비홍의 충고를 거부했던 강대오는 ‘생일파티’가 생일파티가 아님을 알게 되자 곧장 미문화원을 빠져나가려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된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했던 강대오는 그러나 농성학생들 사이에서 예린을 발견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후 강대오는 자신의 신분을 중화루의 배달원이 아니라 중앙대 영문과 학생이라고 속이고, 나중에는 전학련 의장을 사칭하기에 이른다.

비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강대오는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강문모 의장의 등장으로 거짓말이 들통나고 프락치로 오인받는다.⁹⁾ 이후에 강대오는 중화루 배달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예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그 때문에 경찰의 프락치로 전락하고 예린에게도 버림받은 것이다.

이처럼 <강철대오>는 대학생과 대학교수에게 짜장면을 배달하던 강대오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영역에 갇혀 있는 이들은 그러나 서예린에 대한 강대오의 무모한

9) 1985년 당시 전학련 의장은 김민석(전 국회의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으며, 그는 미문화원 점거 농성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배후 조정 혐의로 점거 농성 사태 이후 수배령을 받는다.

사랑의 힘으로 역설적으로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가능한 꿈을 꾸자는 서예린의 메모에 대한 쉐인 교수의 해석과 이에 대한 강대오의 오해는 이러한 역설적 소통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서예린과 쉐인 교수가 생각했던 ‘불가능한 꿈’은 아니지만 강대오 역시 예린과 연애하고 싶은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혁명’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가능한 꿈을 이루는 행위였던 것이다.

3. 짜장면과 언어유희 - 구어(口語)의 힘과 모순의 극복

강대오는 농성장 안에서 경찰의 프락치로 오인받지만, 중앙동¹⁰⁾ 파출소의 김순경은 그를 중화루의 위장취업자라고 생각한다. ‘중화루가 망하면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는 중화루 철가방에 적힌 구호는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좌익용공세력의 불온문구이다. 작품에서 가장 입담이 좋은 황비홍(박철민 분)과 김순경(고창석 분)이 파출소에서 나누는 대화는 짜장면에 대한 1980년대적 언어유희의 절정을 보여준다.

황비홍 김순경님. 근데 대오가 위장취업자라든
뭇때문시 철가방으로 위장취업을 했을까요?

김순경 황비홍. 이걸 너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냐.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듯 눈빛이 진지해지며)
너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에 짜장면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졸업식 때 가족들이랑 뭘 먹을거야?
군인들이 휴가 나왔는데 싸재에 짜장면이 없네.
이거 미치지!

10) 현실에서 존재하는 지역명칭이 아니다.

특히 당구장에서 죽때리는 사회불안 세력들.
당구 치고 배가 고프데 짜장면이 없네.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불안이 조장된다구.
이 문구,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황비홍,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란다.

한반도에서 짜장면이 없어진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측하는 위 대목은 민중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1980년대 공안정국에 대한 블랙코미디이다. 짜장면은 졸업식 때 가족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였으며, 휴가 나온 군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짜재(군대 밖 사회)’ 음식이었고, 백수들의 단골 메뉴였다. 김순경은, 짜장면이 사라진다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이고, 강대오는 짜장면의 바로 그런 힘을 간파하고 중국집에 위장취업했다고 주장한다. 짜장면의 힘을 간파하고 위장취업을 했다는 김순경의 이야기는 1980년대 공안당국이 자행한 터무니없는 죄목 날조 과정에 대한 풍자이면서, 동시에 당시 우리 사회에서 짜장면이 갖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희극적 표현이다.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짜장면은 온 국민이 좋아하는 한 끼 식사이지만, 졸업식 때 가족과 함께 먹거나 휴가 나온 군인들이 서둘러 찾는 메뉴는 아니다.

이어지는 김순경과 황비홍의 대화는 더욱 흥미롭다.

김순경 (자신의 지식에 다소 신난 얼굴이다)
너 여대생이 뭘 뜻하는 줄 아냐? ... 바로 계급사상을 말하는 거야.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놈들은 개들이랑 하고, 어떤 놈은 못하고!
(중략)

그 다음엔 아마 노동조건을 얘기했을 걸.

황비홍 노동조건요?
김순경 그렇지. 너 하루에 몇 시간 일해, 보통?
황비홍 아침 열 시에 시작해서...그릇 수거까지 하면 밤 열 시...
김순경 그렇지? 세상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
거기 보면은 하루 여덟 시간 이상 일 못 시키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안 해?
월차는?
황비홍 월차가 뭐라요?
김순경 결국 너에게 이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려는 거야.
왜? 혁명에는 니네 같이 순진하고 힘만 좋은 애들이 필요하거든,
황비홍 (약간 짜증) 아따 순차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세요. 월차가 뭐냐구요?

김순경, 대답이 없다.

김순경은 강대오를 점점 더 불순한 위장취업자로 몰아간다. 황비홍을 비롯한 중국집 배달부들에게 계급사상을 전파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순경의 애초 의도와 다르게 그들의 대화는 어느덧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폭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강철대오>에는 ‘철가방 협회’라는 작은 조직이 나온다. 원래 철가방 협회는 중국집 전화번호 스티커 위에 피자집 스티커를 덧씌우는 파렴치한 피자 배달부들을 혼내주려고 결성한 모임이었다.¹¹⁾ 하지만 김순경과의 대화 이후 황비홍은 철가방 협회원들과 함께 ‘월차가 없는 자신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자생적 노동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비판하려는 대상이 스스로 자신의 부정성을 폭로하게 만드는 언어유

11)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철가방 협회에 대한 소개가 작품 초반부에 나오지만 실제 개봉 영화에서는 생략되었다.

회는 전통 탈춤에서 말뚝이가 등장하여 양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양반들을 골려주고, 양반들 스스로 자신들의 무능을 폭로하게 만드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유희는 <강철대오>가 애초부터 ‘마당극’을 닮은 영화를 표방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강대오는 ‘전통극 연구회’로 짜장면 배달을 가는데, 동아리 방 안의 칠판에 ‘마당극 출연자’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남주 김인권(벌렁코)’, ‘여주 유다인(새침이)’, ‘민중 배우 박철민(하마), 조정석(뽕질이)’ 등의 배우 및 스텝 소개가 되어 있다. 이처럼 작품 바깥에서 크레딧으로 나와야 할 출연진 소개가 작품 안의 소품으로 등장한 것은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소 뻘한 전략이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배우들을 소개하면서 ‘마당극 출연자’ 또는 ‘민중 배우’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다. 이는 <강철대오>가 블랙코미디를 지향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당극’ 기법을 차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강철대오>는 처음부터 마당극 또는 탈춤을 연상하는 전통극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언어유희적인 대화는 김순경과 황비홍의 대화뿐 아니라 작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한국의 신식민지적 상황을 짜장면과 햄버거에 비유하는 서기철의 설명은 한 편으로는 명백한 궤변이지만, 또 한 편으로는 짜장면의 시대적 위상 변화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적이기도 하다.

대오 저... 신식민지가 무슨 ..말.. 인가요?

(중략)

그럼 피자랑 햄버거도 신식민지랑...

서기철 (당황) 피자? 햄버거? 그것들도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에서, 하나의 현상적인 부분으로...

대오 그럼 피자, 햄버거를 몰아내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일인가요?
서기철 아.. 그제... 좀 애매한 부분인데..
대오 그럼 짜장면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인가요?
서기철 아, 그제... 햄버거적 세계관은 과연 짜장면적 세계관과의 철학적 정치적 차이를 노정시키느냐하는 문제와 그렇다면 짜장 곱빼기와 탕수육의 변증법적 지양은 과연 어떻게...

대오, 노트에 적다가, 기철을 멍하니 보고 있다.

신식민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학생 서기철의 말을 노트에 받아적으며 경청하던 강대오는 짜장면 매출을 위협하는 피자와 햄버거가 신식민지와 관련이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진다. 그럴 듯하다고 생각한 서기철은 현학적 표현을 동원하며 추가 설명을 시도하다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 대화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짜장면의 위상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배후에는 신식민적인 사회구성체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보여주는 환유적 기능을 담당하며 그 반대편에 짜장면이 위치해 있음을 중국집 배달원과 운동권 대학생의 대화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강철대오〉의 언어유희는 운동권 대학생들의 은어 사용을 중국집 배달원들의 은어 사용과 비교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문화원을 접거농성 중인 대학생들은 자신들 중에 프락치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은어 사용 능력을 시험한다.

기철이 영민을 노려보고 있다.

기철 자민투가 뭘니까?
영민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기철 민민투?

영민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기철 삼민투?
영민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기철 달밤체조 위해 아지프로 하는 피 뿌리다가 째새에 달려, 수학여행 갔다 오니 패밀리에서는 이십전십의 사구체를 파라고 한다.
영민 야간에 데모하러 나가 전단지 뿌리다가, 경찰에 잡혀 연행됐다 돌아 오니 동아리 선배들은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사회 구조 분석을 공부하라고 한다.

남정과 기철,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 시선을 대오에게 옮긴다.
대오는 눈에 띄게 땀을 흘리고 있다.

애초에 프락치로 의심받았던 황영민은 운동권 대학생들의 은어 해독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증명한다. 하지만 그 동안의 영웅적 활동으로 기대를 모았던 강대오는 은어 해독에 실패함으로써 결정적인 혐의를 지게 된다. 운동권의 은어 해독 능력이 대학생과 프락치를 가르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아직 일학년이예요. 우리 슬랭을 알기에는 무리라고요.”라는 예린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족보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강릉 강씨 삼십 이대 손’이라는 강대오의 대답은 용납할 수 없는 프락치의 기호가 된다.

프락치로 몰린 강대오는 자신이 중화루의 배달원임을 밝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온갖 수모와 집단구타를 감내하던 강대오를 구해준 것 역시 아이러니컬하게도 강대오의 ‘은어 해독 능력’이다. 운동권의 은어 체계가 외부 사람들의 이해를 차단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중국집 배달원들의 은어 체계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단축어 위주로 구성된 것이 다를 뿐이다.

황비홍 우둘짜둘대영삼!
대오 대영빌딩 삼층에 우동 두개 짜장 두개!
황비홍 부당슬살기볶!
대오 부동산에 탕수육 유산슬, 쌀집에 기스면 볶음밥!
황비홍 야끼볶둘삼삼칠!
대오 야끼만두 볶음밥 두 개 삼백 삼십 칠번지!

황비홍 수거삼철물 득칠천동사!

대오 철물점에서 그릇 세 개 수거하고, 동사무소에서 칠천원 받아와!

황비홍, 대오를 보다 학생들을 향해 돌아선다.

황비홍 학생 여러분,
이 친구는 중화루 배달기수 2호 강대오가 맞습니다.

학생들, 고개를 끄덕인다.

이처럼 <강철대오>는 걸쭉한 입담과 인물들 간의 끊임없는 오해담을 통해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을 형상화하였다. 폭소를 자아내는 황당한 대화들을 통해 <강철대오>는 1980년대의 공안정국과 그들의 비정상적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사회 변혁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적 편향성 또한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4. 구국의 철가방 - 불가능을 기능으로 바꾸는 강철대오

영화의 제목인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은 87년에 결성된 전대협¹²⁾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슬로건인 ‘구국의 강철대오’를 패러디한 것이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구국의 강철대오’가 영화에서 ‘구국의 철가방’으로 오버랩된 것이다. 영화에서 ‘강철대오’는 주인공 ‘강대오’의 이름 석 자에 철가방을 의미하는 ‘철’자를 덧붙여 그의 직업이 중국집 배달부임을 알려주고 있다. 부제인 ‘구국의 철가방’까지 포함한다면 영화의 제목은 “중국집 배달부 강대오가 철가방으로 나라를 구한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철가방’은 위기에 빠진 영화 속 학생들과 전경들을 구하는 데에 일조한다. 따라서 영화의 제목 ‘구국(救國)’에서 ‘국(國)’은 학생과 전경으로 환유되는 것이다.

철가방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영화의 첫 장면부터 나온다. 영화는 학생 시위대와 전경들이 대치하는 사이에서 강대오가 오토바이를 몰면서 짜장면을 배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위대가 던진 돌이 강대오에게 날아올 때마다 그는 철가방을 들어 능숙하게 막아낸다. 시위대와 전경 사이에 강대오가 없었다면, 시위대의 돌은 전경들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관객들이 눈치채기는 어렵지만 영화의 첫 장면부터 강대오는 철가방으로 전경들을 구한 것이며, 이는 철가방이 음식 배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철가방이 나라를 구하는 두 번째 장면은 철가방 연합회 소속의 배달원들이 집단으로 미문화원 진입을 시도할 때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때 황비홍과 배달원들이 학생들뿐 아니라 전경들에게도 짜장면을 나누어

12) 영화는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영화에서는 ‘전대협 대신 ‘전학련’이 나온다. 전학련의 캐치프레이즈가 전대협과 동일하게 ‘구국의 강철대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사실의 고증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문화원 점거농성은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동안 전학련 소속의 대학생 73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영화에서는 35명의 대학생이 1박2일 동안 진행한 것으로 설정된다.

준다는 사실이다.

소경위 몇 그릇이야?

황비홍 짜장 150그릇, 짬뽕 150그릇, 야끼만두 물만두 30그릇....

소경위 30명 좀 넘는데 뭐가 그리 많아?

황비홍, 잠시 한숨을 내쉬 뒤 소경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황비홍 경찰님. 경찰님은 군대 계실 때에 뭐가 제일로 먹고 싶으셨습니까?

영화는 1980년대에 군복무를 하던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어한 바깥 음식 중 하나가 짜장면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시시키는 방식으로 1980년 우리 사회에서 짜장면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우여곡절 끝에 미문화원으로 짜장면 배달을 승인받은 황비홍은 허기에 지쳐 있는 전경들까지 짜장면을 나눠주는 여유와 관용을 보인다. 이는 <강철대오>가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 운동권 대학생뿐 아니라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전경까지 포함한 젊은이들 모두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철가방이 나라를 구하는 세 번째 장면은 미문화원으로 진입한 전경들이 곤봉으로 학생들을 해산하려 할 때이다. 빈 그릇을 정리하던 철가방 연합회 소속의 배달원들은 황비홍의 군호에 맞춰 일시불란하게 대오를 갖추어 전경들의 곤봉 공격으로부터 학생들을 막아낸다. 이 장면은 마치 로마 병정들의 전투 장면을 패러디한 듯하다.

철가방이 나라를 구하는 네 번째 장면은 옥상으로 피신한 대학생들에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공격이 가해질 때이다. 이 때에도 배달원들은 익숙한 솜씨로 철가방에서 음식을 받치는 부직포를 꺼내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이처럼 영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은 제목이 언술하는 그대로

강대오를 비롯한 중국집 배달원들이 철가방을 이용하여 ‘국가’를 환유하는 전경과 학생들을 동시에 구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철가방’은 주인공 강대오의 직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에서 구국의 주체는 철가방이 아니라 강대오이다. 그리고 강대오는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구해준다.

미문화원 점거 농성 중 계속되는 전경들의 진압 작전을 번번히 좌절시킨 핵심 인물이 강대오였다. 강대오의 거둬들인 활약에 놀란 경찰은 그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며 그를 전학련 의장 강문모로 지목한다. 경찰의 이러한 오해를 이용해 강대오는 실제 강문모와 그의 연인 서예린을 배달원으로 위장시켜 탈출시킨다. 천식 환자인 예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괴로워하자 미문화원 옥상의 철탑 꼭대기에 올라가 성조기를 끌어내리고, 이를 담요처럼 활용해 그녀를 지켜준 사람 역시 강대오였다. 특히 강대오가 성조기를 끌어내리는 장면은 방송국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 마스크에서 영어, 일본어, 아랍어 등으로 방송된다. 한국의 독재 정권을 비호하는 미국을 비판하려던 점거 농성의 목적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인물이 다름 아닌 강대오였던 것이다.



〈그림 자료〉 강대오가 성조기를 끌어내리는 장면을 방영하는 전 세계 마스크

대학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사회 정치적 의식이 전무했던 강대오가 대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발생한 부조화가 영화 전반부의 핵심 이야기라면,

영화의 후반부는 강대오의 영웅적 활동에 힘입어 부조화가 조화로 바뀌는 특이한 화합 서사를 이룬다. 강대오는 학생과 전경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채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그만의 방식으로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준비한 영어 격언 세 마디만으로 미 대사관 직원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한 강대오는 돈키호테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집에서 손님들의 테이블에 종이컵을 놓을 때 사용하던 ‘세팅’ 기술이, 농성 중인 대학생들의 각목 싸움 연습에 활용된 것 역시 강대오의 엉뚱한 행위가 대학생들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진해서 농성을 풀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어깨를 맞댄 채 김완선의 〈오늘 밤에〉를 합창한 것은 운동권 대학생들과 중국집 배달원들 간의 이해와 연대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짜장면 배달부 강대오와 여대생 서예린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철대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강철대오〉에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민중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민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운동권 학생들까지 모두 풍자의 대상이다. 하지만 영화는 전경이나 학생들의 이율배반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강대오와 짜장면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언어유희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해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었다. 〈강철대오〉는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작품 속으로 소환하여 잊혀져 가고 있던 80년대의 사회상을 복원하는 데에 일정하게 성공하였다. 운동권 여학생을

짜사랑한 짜장면 배달원의 이야기를 통해 1980년대의 공안정국과 당시 학생들의 반미감정을 그린 것은, 익숙하지만 빠르게 잊혀가고 있는, 하지만 기억해야 할 눈앞의 과거이다.

사실 〈강철대오〉는 ‘미문화원 점거농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중심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 여러 설정은 당시의 시대상과 맞지 않았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경과 시위대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온 강대오가 대학 잔디밭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향하여 ‘짜장면 시킨 분!’¹³⁾을 외치는 장면이나, 황비홍이 중국집 전화번호 스티커 위에 피자집 스티커를 덧씌우는 파렴치한 피자 배달부들을 혼내주려고 철가방 연합회를 결성하는 장면 등은 1990년대의 풍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⁴⁾ 이 밖에도 ‘강철대오’라는 영화의 제목 자체가 1987년에 출범한 전대협을 주요 구호였고, 쉐인 교수가 2000년에 출간된 체 게바라 평전을 꺼내드는 장면이나, 미문화원 점거농성장에서 강대오가 1986년에 나온 김완선의 〈오늘 밤〉을 부르는 장면 등은 모두 디테일한 측면에서 시대적 사실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시간적 선후는 맞지 않았지만 각각의 장면들은 모두 작품에서 일정하게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대중적으로 성공했던 ‘전대협’의 이미지를 ‘전학련’에 투사한 것은 80년대에 대한 대중의 기억을 소환하는 데에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체 게바라의 ‘불가능한 꿈’ 역시 민주화에 대한 80년대의 열망과 강대오의 소망을 오버랩 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피자와 짜장면의 대조나 김완선의 노래 등도 비슷한 기능을 담당

13) 영화 속 강대오의 대사인 ‘짜장면 시킨 분!’은 1997년에 한 이동통신사에서 제작한 CF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다.

14) 한국에서 배달 전문 피자집들이 경쟁적으로 생겼던 시기는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1990년대 말의 풍경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 사실에 대한 엄밀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소구들이 작품의 주제를 심각하게 헤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의 핵심은 서예린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강대오의 '혁명'에 있다. 사실성이 떨어지는 코믹한 방식에 의존하기는 했으나, 1980년대의 현실 속에서 중국집 배달원과 여대생의 연애는 정말로 불가능한 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강대오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공안정국 아래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와 병치시킴으로써 작품의 진정성을 높이는 데에 일정하게 성공하였다. 강대오의 사랑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 하지만 짜장면이 '한식' 메뉴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지만 대다수 한국인이 너무도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듯이, 서예린에 대한 강대오의 사랑 역시 결코 일반화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수록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짜장면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육상효(감독),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 스페이스M, 2012.

2. 논문과 단행본

김기국, 『〈만화 짜장면〉과 상상력의 스토리텔링 -동화 『짜장면』과의 비교 및 만화의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29집, 한국기호학회, 2011, 67~94쪽.

김만태, 『짜장면의 토착화 요인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 50호, 한국민속학회, 2009. 11, 159~207쪽.

연구동, 『짜장면을 위한 변명-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호, 한국어학회, 2006, 181~205쪽.

박하 글, 김재연·허영만 그림, 『짜장면』 1~11권, 학산문화사, 1999.~2001.

안도현, 『짜장면』, 열림원, 2000.

안도현 글, 최규석·변기현 그림, 『만화 짜장면』, 행복한만화가게, 2003.

양세욱, 『짜장면년』, 프로네시스, 2011.

크리스토프 나이트하르트, 『누들』, 박계수 옮김, 시공사, 2007.

Abstract

Mr. Kang, the Jajangmyeon Delivery Man's Love, Misunderstanding,
and Fight for Democracy

– Focusing on the Movie 〈Almost Che〉

Park, Sang-Min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Jajangmyeon motif in the Korea public narrative by focusing on the movie 〈Almost Che〉. This paper especially focused on the way to enjoy 1980s' Korea culture by jajangmyeon.

Mr. Kang who delivers Chinese food with a Steel Container speaks nonsense words continuously to Miss Seo who is a female college student. And Miss Seo also speaks nonsense words continuously to Mr. Kang. Their linguistic playfulness is comic caricatures that they can't communicate each other. But their linguistic playfulness shows the power of colloquial language transcending the limits of logical thoughts as the final outcome. Paradoxically, they proved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by their linguistic playfulness. To conclude, 〈Almost Che〉 shows the public power that impossibility changes into possibility by Mr. Kang who loves Miss Seo.

In the movie, 〈Almost Che〉 recalled the strike affair with occupying the American Culture Center in 1985. And 〈Almost Che〉 fairly succeeded restoring 1980s' Korean society that has been forgotten by the public now. It revealed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and the anti-American senti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1980s. Although they have been forgotten fast, they are still the important past history.

(Key words: jajangmyeon, black-bean-sauce noodles, Almost Che, Delivery Man, Steel Container, female college student, communication, linguistic playfulness, 1980s, strike with occupation, the American Culture Center)

114 대중서사연구 제21권 1호

투고일 : 2015년 2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5년 4월 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5년 4월 12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5일